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K-MSLSS)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이 정 미

이 양 희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K-MSLSS)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Huebner(1994)의 MSLSS 40문항을 번안·수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만 9-12세 남녀 초등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SLSS는 친구, 학교, 가족, 환경, 자아 만족도의 5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최종 34문항으로 확정되었다. 2주 간격으로 실시한 K-MSLSS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Pearson's r)였으며, 친구, 학교, 가족, 환경, 자아 등 각 하위 요인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80, .82, .79, .79, .73으로서 모든 영역에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34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으며, 친구, 학교, 가족, 환경, 자아 등 각 하위 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84, .84, .80, .82, .73으로서 심리측정적으로 매우 양호한 구성타당도를 나타내었다. 준거척도와와의 상관분석 결과, 아동용 자아지각척도와는 .43($n=96$)의 비교적 약한 상관을 보였으나, 소아우울척도(K-CDD)와는 -.63($N=254$)의 양호한 상관을 보여 적절한 공인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K-MSLSS는 만 9-12세의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생활만족도, 주관적 안녕, 소아 우울척도, 자아지각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근래 들어 심리학은 삶의 부정적이고 모자란 측면들을 평가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 몰두하던 종래의 태도에서 벗어나, 인간 내부에 있는 긍정적인 자질(資質)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돕는 것으로 그 학문적 관심이 변

화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은 Seligman, Csikszentmihalyi, Diener, Ryff, Masten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21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도 사회학, 복지학, 심리학, 정신의학 분야에서 이 같은 움직임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동향을 고려할 때, 긍정적 심리학은 우리 아동학 분야에도 발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긍정적 심리학’이라는 기치(旗幟) 아래의 연구 영역은 안녕, 만족, 희망, 낙관성, 몰입(flow), 이타심, 책임감 등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개인 또는 사회적 단위의 삶의 질’(Keyes, Shmotkin, & Ryff, 2002)로서 정의되는 안녕(well-being)은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최근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안녕연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과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은 긍정적 심리학 분야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 결과물들을 제시해 온 영역들이라 할 수 있다. 안녕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안녕감’, ‘복지’, ‘복지감’, ‘행복’, ‘건강’ 등 여러 용어로 사용되며 조금씩 진행되어 왔으나, 대개 노년층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의 성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Ryff로 대표되는 심리적 안녕과 Diener로 대표되는 주관적 안녕이 혼용(混用)되어 왔다.

Diener(2000)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내리는 평가’라고 정의한 주관적 안녕은 지난 30여 년간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구인이다.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결과 지금은 주관적 안녕의 구인이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의 세 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3요소 모델(Tripartite Model)이 정설(定說)로 받아들여지고 있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Convers, & Rodgers, 1976; Diener, 1984; Emmons & Diener, 1985).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활만족도는 정서에 대한 평가보다는 인지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관적 안녕의 다른 두 요인, 즉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와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Greenspoon & Saklofske, 1998).

모든 심리적 속성에 대한 연구들이 그러해 왔듯,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역시 초창기 성인을 대상으로 하던 연구에서 차츰 청소년기, 그리고 아동기로 그 대상의 폭이 넓혀져 왔는데, 청소년 전기(前期)의 아동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주관적 안녕에 대한 연구가 처음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난 1980년대 말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아동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고안된 도구는 Perceived Life Satisfaction Scale (PLSS),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SLSS), 그리고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MSLSS)이 있다. 각 도구들의 장단점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87년에 처음 개발된 PLSS (Smith, Adelman, Nelson, Taylor, & Phares, 1987; Adelman, Taylor, & Nelson, 1989)는 물질적 안녕(material well-being)과 신체적 안녕(physical well-being), 관계, 개인적 충족감, 여가 및 오락에 관한 총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 질문지로서 6점 척도로 제작되었다. 종래 성인에만 국한 되어 있던 것에서 청소년기까지 그 대상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척도의 요인구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고 (Huebner & Dew, 1993a; 1993b), 청소년만을 위해 개발되어 그보다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단점이 있다. Huebner와 Dew(1993a)는 PLSS

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아동들이 생활의 하위 영역들을 변별하지 못한다고 가정한 PLSS의 개발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PLSS가 다차원적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요인분석해본 결과, 해석 가능한 다차원의 요인들이 추출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Huebner에 의해 1991년에 처음 개발된 SLSS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묻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로서 3-8학년 아동들의 안녕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도구는 Diener를 비롯한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Pavot, Diener, Colvin, & Sandvik, 1991)에 근거하여, 대규모의 조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후 여러 후속연구에서 단일차원 요인구조(Dew & Huebner, 1994; Huebner, 1994), 적절한 내적 일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Dew & Huebner, 1994; Huebner, 1991a, 1991b), 적절한 준거타당도와 변별타당도 및 수렴타당도(Huebner & Alderman, 1993; Huebner, 1991b, 1991c; Terry & Huebner, 1995)가 확인· 입증되었다. 그러나 단일차원 요인구조로 제작되었다는 심리측정적인 내재적 단점(Diener, 1984; Marsh, Barnes, & Hocevar, 1985) 때문에, 아동의 다양한 생활영역들을 만족스럽게 측정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다문항 척도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Huebner & Dew, 1993a; Huebner, 1994).

이 같은 배경 하에, 1994년에 Huebner에 의해 개발된 MSLSS는 오늘날 아동기 주관적 안녕 연구 분야에서 가장 포괄적인 도구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Greenspoon &

Saklofske, 1997). 가족, 친구, 학교, 자아, 환경 등의 다섯 영역에서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인 지각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성분 분석을 통한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Huebner, 1994)에서 전체 문항 간 내적 일치도 .80이상의 5요인 구조가 보고되었고, MSLSS와 인구학적 변인 간의 관련성 및 적절한 수준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Huebner의 결과는 미국(Gilman, Huebner, & Laughlin, 2000; Huebner, Laughlin, Ash, & Gilman, 1998), 캐나다(Greenspoon & Saklofske, 1997, 1998), 스페인 (Casas, Alsinet, Rossich, Huebner, & Laughlin, 2000)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복제되고 확장되었다. 또한, 최근 Park는 Huebner와 함께 MSLSS를 이용하여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비교 문화적 연구를 한 바 있다(Park & Huebner, in press; Park, Huebner, Laughlin, Valois, & Gilman, 2004). 세계 여러 나라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들 후속연구에서 Huebner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5요인구조가 확인되었고 적절한 내적 일치도 및 양호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나타냈고, 생활만족도와 연합된 것으로 알려진 몇 가지 자기 보고 변인들과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LISREL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이론에 의해 제안된 것과 동일한 5요인 구조가 검증되었다(Greenspoon & Saklofske, 1998).

이처럼 1994년에 처음 개발된 이래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MSLSS는 국내에서는 곽금주(1995)가 평균연령 13.4세의 중학교 1학년 남학생만을 대상으

로 사용한 적이 있다. 이후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국내 연구는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에 있어서의 도시와 농촌 청소년 간의 차이를 살펴본 김의철·박영신·곽금주(1998)의 연구, 부모의 사회적 지원 및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박영신·김의철·민병기(2002)의 연구, 생활만족도와 귀인양식과의 관계를 살펴본 한유진과 최나야(2004)의 연구 등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이영석과 이승은(2000; 2002)이 학령전기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MSLSS를 번안하여 사용한 적이 있을 뿐이다. 이는 아동의 긍정적 측면에 시선을 두는 연구풍토가 우리 학문분야에서 아직 미미하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의 부재(不在)가 그 원인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최근 최진원과 이소희(2002)에 의해 아동의 심리적 복지척도(The Child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가 개발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5-6학년 아동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러 학자들(Harter, 1982, 1983; Huebner, 1991a, 1994; Waters, Salmon, Wake, Wright, & Hesketh, 2001; Ratt, Bonsel, Essink-Bot, Landgraf, & Gemke, 2002)에 의해 자기보고가 가능한 연령으로 인정되는 초등학교 3-4학년 아동들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만 9-12세의 초등학교 3-6학년 아동들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Korean version of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K-MSLSS)를 개발하고

자 한다. 또한, 그 심리측정적 속성을 분석하여 도구로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K-MSLSS)의 요인구조는 어떠한가?

둘째,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K-MSLSS)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셋째,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K-MSLSS)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9-12세의 아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징 (명)

학년	성별	구 분			계
		A구	B구	C구	
초 3	남	14	9	9	32
	여	12	6	8	26
	소계	26	15	17	58
초 4	남	15	12	10	37
	여	10	8	10	28
	계	25	20	20	65
초 5	남	14	12	12	38
	여	13	9	8	30
	계	27	21	20	68
초 6	남	13	12	9	34
	여	11	8	10	29
	계	24	20	19	63
합계	남	56	45	40	141
	여	46	31	36	113
	계	102	76	76	254

동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 13개 구 중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3개 구에서 각 구별로 1개 초등학교를 편의표집 하였다. 3학년 58명, 4학년 65명, 5학년 68명, 6학년 63명으로 최종적으로 총 254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남자는 141명으로 전체의 55.5%였고, 여자는 103명으로 전체의 44.5%였으며, 평균연령은 10.5세(SD=1.2)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1)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K-MSLSS)

본 척도는 Huebner(1994)가 개발한 MSLSS의 체제와 영역구성을 기초로 하여, 가족, 친구, 학교, 자아, 환경 등의 다섯 영역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인 지각을 묻는 40문항으로 제작되었다. 이 가운데 10문항은 응답의 편기(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문의 형태로 진술되었다.

1994년 처음 개발되었을 당시 Huebner는 문항의 응답형식을 ‘빈도’를 묻는 4점 평정척도 응답방식으로 제작하였다. 그러나 이후 연구를 거듭하면서 그는 ‘빈도’를 묻는 4점 척도 응답방식 보다는 ‘정도’ 혹은 ‘강도’를 묻는 6점 척도 응답방식이 보다 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2004년 10월 21일 및 2005년 1월 28일 Huebner와의 서신교환, 2005년 1월 24일 및 2005년 4월 5일 Park와의 서신교환).

본 연구에서 사용한 K-MSLSS 질문지는 이러한 선행연구자들의 견해를 좇아, 각 문항에 대해 아동들이 얼마나 동의하는 지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6점 척도 응답방식을 채택하였다.

2) 한국판 소아우울척도(K-CDI)

한국판 소아우울척도는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Kovacs의 소아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번안하여 한국 아동에게 맞게 타당화를 마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아동용 우울척도이다. 8-13세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 2주일 동안의 자신의 기분상태를 묻는 27개의 문항에 대해 0점, 1점, 2점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아동은 우울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K-MSLSS의 공인타당도를 검토하는 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를 위한 준거도구로 선택하였다.

3) 아동용 자아지각 척도

아동이 지각하는 생활만족도나 행복과 관련된 구인으로 자아개념을 꼽은 Harter(1989)의 견해와 이를 실증적 연구에서 확인한 McCullough, Huebner, & Laughlin(2000)의 연구 결과에 따라, K-MSLSS의 공인타당도를 위한 또 다른 준거도구로 자아지각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아동은 자아지각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K-MSLSS의 공인타당도를 검토하는 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아동용 자아지각 척도는 Harter의 도구를 이은혜 · 신숙재 · 송영주

(1992)가 한국아동에게 맞게 수정하여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인지능력, 신체적 능력, 사회적 수용, 외모, 행동, 전반적 자아가치의 6가지 영역을 측정하는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반응형식은 긍정적 지각과 부정적 지각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선택한 후, 그 문항의 내용이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다시 결정하는 4점 평정척도이다.

연구절차

1) 문항 개발 및 예비조사

MSLSS(Huebner, 1994)의 문항들을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안한 후,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전공자의 역번안 문항들과 비교하여 수정하였다. 이 후, 아동학 박사 1인의 내용 검토과정을 거쳐 총 4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예비조사 질문지가 작성되었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각 문항에 대한 아동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 1개 학급을 대상으로 예비조사와 면접을 실시하였다. 문항에 대한 아동들의 반응과 3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2인과의 토의를 통해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의 읽기 이해도 수준에 맞도록 문항을 적절히 수정하고,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토를 거쳐 최종 40문항으로 이루어진 본 조사 질문지가 작성되었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아동들은 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서울 시

소재 초등학교 3곳에서 각 학년별 1개 학급에서 교사의 협조를 얻어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 실시되었다. MSLSS의 개발자인 Huebner의 조언(2004년 10월 21일 서신교환)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때는 검사자가 지시문을 소리 내어 읽어주고, 연습문항을 함께 풀어본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문항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동들로 하여금 설문응답 도중 질문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 질문지의 구성은 K-MSLSS 질문지,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K-CDI 질문지, 그리고 간단한 인구학적 배경을 묻는 질문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360부가 배부되었고, 306부가 회수되었으며,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총 254부가 최종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1차 설문이 이루어진 지 2주일 후, 2차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2차 설문은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공인타당도를 얻기 위한 자료 수집이 그 목적이었다. 2차 설문에 사용된 질문지는 K-MSLSS 질문지, 아동용 자아지각척도 질문지, 그리고 1차 설문 응답여부 확인을 위한 간단한 기록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130부가 배부되었고, 117부가 회수되었으며,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총 96부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Program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의 편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정문으로 기술된 10개 문항(3번, 4번, 9번, 13번, 23번, 24번, 27번, 32번,

34번, 39번)은 높은 점수가 높은 수준의 안녕을 나타내도록 역 코딩(reverse coding)하였다.

K-MSLSS의 하위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인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요인의 추출은 변수의 축소가 목적인 때는 주성분분석이, 내용의 요약이 목적인 때는 공통요인모형인 주축분석이 바람직하다고 한 이순묵(2000)의 견해에 따라 주축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회전은 SPSS를 이용한 요인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직각회전(Varimax Rotation) 방식을 사용하였다. 끝으로, K-MSLSS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통해 Pearson's r 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K-MSLSS의 요인구조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KMO 측도를 이용하여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문항에 의해 얼마나 잘 설명되는 지 알아보았다. K-MSLSS 예비문항 40개의 KMO 측도값은 .81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Sphericity) 검정치는 3649.58 ($df=780$)이었고, 이 값의 유의수준이 .00이므로 요인분석이 가능한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K-MSLSS의 하위요인 및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축분석과 Varimax 직각회전방법을 통한 요인분석 결과, 13번 반

복계산 후 10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고유치가 1.00 이상인 요인수가 5개에 불과하였으므로, 요인수를 5로 지정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7번 반복회전 하여 요인회전이 수렴되었다. 40개의 문항 가운데 요인 부하값이 각각 .25와 .20으로 작게 나타난 35번 문항(나는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것이 좋다)과 34번 문항(우리 동네엔 나쁜 사람들이 잔뜩 산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들 문항을 제외한 38개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문항이 적절한 하위 요인에 .30이상의 요인 부하값을 보였으나, 24번 문항(나는 다른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과 14번 문항(나는 내가 좋다)은 요인 부하값이 각각 .28과 .27로서 기준이 되는 .30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값이 크게 작지 않고 내용상 적절한 요인에 묶였으므로,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2번과 15번 문항은 .30이상의 적절한 요인 부하값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두 개의 요인에 걸쳐 근사한 값을 나타내어 최종 척도구성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번 문항(나는 같이 어울리기에 재미있는 사람이다)은 제 1요인(친구)에 .43의 요인 부하값을, 제 5요인(자아)에 .40의 요인 부하값을 획득하였다. 이는 자아 요인으로만 추출된 Huebner(1994)와 Greenspoon과 Saklofske(1997)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2번 문항에 대해 개체로서의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보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이 바라보는 나'로서 판단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15번 문항(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재미있게

표 2. K-MSLSS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내용	요인					R ²
	1	2	3	4	5	
16. 내 친구들은 나한테 잘해준다.	.77					.70
1. 내 친구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76					.65
12. 내 친구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것이다.	.75					.68
23. 내 친구들은 나에게 심술궂다.	.48					.43
29. 나는 친구들과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을 한다.	.47					.44
38. 나는 친구가 충분히 있다.	.45					.41
2. 나는 같이 어울리기에 재밌는 사람이다. ^a	.43				.40	.48
4. 나는 친구들과 있는 것이 즐겁지 않다.	.41					.32
11. 내 친구들은 멋지다.	.40					.29
24. 나는 다른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b,*}	.28					.28
22. 나는 학교에 있는 것이 좋다.		.82				.79
25. 학교는 재미있다.		.78				.72
20.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기다려진다.		.69				.61
26. 나는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즐긴다.		.59				.55
13.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 좋겠다.		.58				.45
3. 나는 학교에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43				.42
6. 나는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36				.29
9. 학교에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		.36				.39
7. 나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72			.71
18. 나는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것이 좋다.			.69			.75
19. 우리 가족은 사이가 좋다.			.56			.49
30. 부모님과 나는 함께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한다.			.51			.36
28. 우리 가족들은 서로에게 상냥하게 말한다.			.50			.44
21. 부모님은 나를 공평하게 대하신다.			.34			.31
8.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들보다 낫다.			.33			.23
15.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a			.30	.29		.54
32. 나는 지금 살고 있는 동네 말고 다른 동네에 살았으면 좋겠다.				.77		.70
31. 나는 우리 동네가 좋다.				.71		.67
40.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좋다.				.71		.68
27.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 다른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52		.42
37. 나는 이웃사람들이 좋다.				.48		.47
36.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은 좋다.				.44		.60
39. 이웃에 다른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b				.40		.41
33. 나는 좋은 사람이다.					.69	.65
10. 나는 내가 잘 생겼다고(예쁘다고) 생각한다.					.59	.37
17.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					.54	.58
5.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47	.60
14. 나는 내가 좋다.*					.27	.39
고유치 합계	8.49	3.75	2.87	2.48	1.21	
분산율(%)	21.22	9.37	7.17	6.21	3.03	
누적분산율(%)	21.22	30.59	37.76	43.97	47.00	

* 요인 부하값이 .30 미만이지만 적절한 요인에 묶여 척도에 포함시킨 문항.

a 두 개 요인에 걸쳐 근사한 요인 부하값을 보여 최종 탈락한 문항.

b 신뢰도 분석에서 문항-총점간 상관을 떨어뜨려 최종 척도에서 탈락한 문항.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역시 제 3요인(가족)에 .30의 요인 부하값을, 제 4요인(환경)에 .29의 요인 부하값을 획득하였다. 이는 거의 동일한 값으로서, 가족요인에 .43, 환경요인에 .36의 요인 부하값을 보고한 Huebner (1994)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아동들이 훨씬 요인 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5번 문항의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의미가 우리나라 아동들에게는 ‘가족’과 ‘환경’ 사이에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요인분석 결과 K-MSLSS의 예비문항 40문항 가운데 35번과 34번, 2번, 15번 문항을 제외한 36개의 문항이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추후 신뢰도 분석에서 문항-총점 간 상관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밝혀진 24번과 39번 문항을 추가적으로 제외한 후, K-MSLSS의 문항구성은 총 34문항으로 이루어졌음을 미리 밝혀둔다.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K-MSLSS)의 신뢰도 및 타당도

1) K-MSLSS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2주 간격으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3>

표 3. K-MSLSS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N=96)

하위요인	신뢰도*
1요인(친구)	.80**
2요인(학교)	.82**
3요인(가족)	.79**
4요인(환경)	.79**
5요인(자아)	.73**
총 점수	.84**

*Pearson 상관계수 **p<.01

3>과 같다.

10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차 설문을 실시하여, 1차 설문자료와 2차 설문자료가 모두 있는 아동 96명의 자료를 토대로 전체 34문항에 대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 .84(p<.01)를 획득하였다. 각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인 요인은 가족으로 .73(p<.01)이었으며, 환경과 자아는 각각 동일하게 .79(p<.01), 친구는 .80(p<.01), 그리고 학교는 .82(p<.01)로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K-MSLSS의 모든 하위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2) K-MSLSS의 구성타당도

K-MSLSS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 간의 내적 일치도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K-MSLSS 34문항 전체의 내적 일치도는 .90으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별 문항-총점간 상관은 다음 <표 4>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 제 1요인(친구)과 제 2요인(학교)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 수는 각각 8개로서, 신뢰도 분석결과 각 요인 내 문항들 간의 내적 일치도는 동일하게 .84로 나타났다. 제 3요인(가족)으로 추출된 7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80이었고, 제 4요인(자아)으로 추출된 6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82였으며, 마지막으로 제 5요인(자아)을 구성하는 5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73으로 얻어져 각 요인 내 문항 간 동질성이 입증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K-MSLSS의 각 하위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 간의 동질성은 .73-.84 사이로 그 구성타당도가 매우 양

표 4. K-MSLSS의 구성타당도

요인	문항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전체 신뢰도 계수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1 요인	1.	.70	.81	.84 (8문항)	
	4.	.44	.84		
	11.	.47	.83		
	12.	.68	.81		
	16.	.75	.80		
	23.	.49	.83		
	29.	.54	.82		
	38.	.54	.83		
2 요인	3.	.51	.83	.84 (8문항)	
	6.	.42	.84		
	9.	.37	.84		
	13.	.53	.83		
	20.	.71	.80		
	22.	.75	.80		
	25.	.73	.80		
	26.	.59	.82		
3 요인	7.	.65	.76	.80 (7문항)	
	8.	.45	.79		
	18.	.62	.76		
	19.	.57	.77		
	21.	.42	.80		
	28.	.59	.77		
	30.	.50	.79		
4 요인	27.	.48	.82	.82 (6문항)	
	31.	.65	.78		
	32.	.65	.78		
	36.	.57	.80		
	37.	.49	.81		
	40.	.74	.76		
5 요인	5.	.43	.70	.73 (5문항)	
	10.	.50	.68		
	14.	.41	.71		
	17.	.51	.67		
	33.	.60	.63		

호한 것을 알 수 있다.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거쳐 최종 확정된 K-MSLSS의 문항은 모두 34개이며, 문항간 상관행렬표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3) K-MSLSS의 공인타당도

K-MSLSS의 타당도 평가를 위해, 한국판 소아우울척도(K-CDI; 조수철 등, 1991)와 아동용 자아지각척도(이은혜 등, 1992)를 사용하였다.

① K-MSLSS와 K-CDI간 상관관계

생활의 다차원적인 측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진 K-MSLSS의 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해 아동의 생활 전반에 걸친 우울 정도를 측정하는 K-CDI와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K-MSLSS와 K-CDI의 총 점수 상관은 -.63(N=254)이 산출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1$). 즉, 생활만족도가 높은 아동은 우울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생활만족도가 낮은 아동은 우울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우울척도가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두 척도의 하위 요인 간 상관을 살펴볼 수는 없었으나, K-MSLSS의 하위 요인 중 제 4요인인 환경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K-CDI 총점과 -.43-.56($p<.01$)에 이르는 적절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므로 K-MSLSS가 우리나라 아동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표 5. K-MSLSS와 K-CDI와의 상관관계 (Pearson's r) (N=254)

	하위요인	K-CDI 총점수
K-MSLSS	1요인(친구)	-.48**
	2요인(학교)	-.53**
	3요인(가족)	-.43**
	4요인(환경)	-.33**
	5요인(자아)	-.56**
	총 점수	-.63**

** $p<.01$

② K-MSLSS와 자아지각척도 간 상관관계 생활의 다차원적인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아동은 자신의 유능성에 대한 자아지각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K-MSLSS의 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해 아동용 자아지각 척도와 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K-MSLSS와 아동용 자아지각 척도의 총점 간 상관의 크기는 Harter(1989)의 견해와는 달리 .43($p<.01$)으로 나타나 기대만큼 높지는 않았다. 두 척도의 총점 및 하위요인 간 상관은 <표 6>에 제시하였다.

두 척도의 하위 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진 상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MSLSS의 제 1요인(친구)은 자아지각척도의 사회적 수용 요인과 .54($p<.01$), 행동요인과 .38($p<.05$)의 상관을 보였다. 이는 친구관계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가 사회적 관계에서의 수용 및 아동의 행동과 정적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K-MSLSS의 제 2요인(학교)은 자아지각 척도의 인지적 능률성 요인과 .44($p<.01$), 사회적 수용 요인과 .53($p<.01$)의

상관을 보였다. 이는 학교생활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가 학교에서의 아동의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지적 능력과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인 또래관계와 정적상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K-MSLSS의 제 3요인(가족)은 자아지각 척도의 외모요인과 .40($p<.01$), 전반적 자아가치요인과 .37($p<.01$)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생활환경에 대한 아동의 만족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진 제 4요인(환경)은 짐작되는 바와 같이, 자아의 유능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는 자아지각 척도와는 상관이 없었다. 반면, 제 5요인(자아)은 행동요인을 제외한 모든 자아지각 척도의 하위 요인들과 .40 이상의 적절한 크기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상 검사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상관은 .18-.60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상관이 있었으나, 두 척도의 총점 간 상관은 작은 정적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한 곽금주(199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K-MSLSS와 자아지각척도는 비록 총점 간 상관이 .43으로서 충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하위 요인 간 상관이 각 요인별로 기대되어지는 방향으로의 상관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겠다.

표 6. K-MSLSS의 아동용 자아지각척도 간 상관관계 (Pearson's *r*)

K-MSLSS 자아 지각척도	N=96					총점 수
	1요인 (친구)	2요인 (학교)	3요인 (가족)	4요인 (환경)	5요인 (자아)	
인지 능률성	.27	.44**	.32	.13	.39*	.37*
신체적 능력	.32	.27	.32	.18	.59**	.38*
외모	.07	.17	.40*	.19	.48**	.30
사회적 수용	.54**	.53**	.17	-.17	.51**	.36*
행동	.38*	.23	.16	.07	.23	.29
전반적 자아가치	.20	.33	.37*	.16	.40*	.38*
총 점수	.29	.47*	.31	-.07	.54**	.43*

* $p<.05$, ** $p<.01$

논 의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K-MSLSS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친구, 학교, 가족, 환경, 자아 등의 5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는 미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Huebner(1994), 캐나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Greenspoon과 Saklofske(1997; 1998), 그리고

미국아동과 한국아동을 대상으로 비교 문화적 연구를 한 Park와 Huebner(2004)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K-MSLSS 34개 문항 전체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 얻어졌다. 각 하위 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친구 .84, 학교 .84, 가족 .80, 환경 .82, 자아 .73으로서, 각 요인이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70-.90 사이의 신뢰도를 보고하였던 선행 연구들 (Greenspoon & Saklofske, 1997; Huebner, 1994; Huebner et al., 1998; Park et al., 2004)의 결과와 비교할 때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하겠다.

둘째, 2주 간격의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K-MSLSS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p < .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2-4주 간격의 재검사에서 .70-.90에 이르는 신뢰도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Greenspoon & Saklofske, 1997; Huebner et al., 1998; Terry & Huebner, 1995)와 일치한다.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한 검사의 결과를 다른 시기에 도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설명해줌과 동시에, 검사 실시의 시간간격에 따라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이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가를 의미한다(강승호 · 김양분, 2004)는 점을 고려할 때, K-MSLSS의 검사도구로서의 안정성이 입증되었다고 하겠다.

셋째, K-MSLSS와 준거척도인 K-CDI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63의 상관을 획득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성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K-MSLSS의 하위 요인 중 환경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

인이 K-CDI 총점과 -.43에서 -.56의 상관을 보였다. 특히 K-MSLSS의 하위 척도 중 자아요인은 K-CDI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 우울이 아동의 생활영역 중 자아에 대한 만족과 가장 큰 상관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끝으로, K-MSLSS와 준거척도인 아동용 자아지각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하위 요인별 상관은 .07-.59로 폭넓게 나타났고, 총점 간 상관은 .43으로서 그 크기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는 아동이 지각하는 생활만족도나 행복과 관련된 구인으로 자아개념을 꼽은 Harter(1989)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는 국내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광금주(1995)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상 검사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상관은 .18-.60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상관이 있었으나, 총점 간 상관은 정적상관이 있었다고만 보고하여 그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아의 유능성을 측정하는 척도와 자아를 포함한 여러 영역에 걸쳐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총점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두 척도 중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특정 하위요인만을 선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만 9-12세 아동들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초등학교 3-6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40개의 예비문항 가운데, 요인분석을 거쳐 낮은 요인 부하값을 보였거나 두 개의 요인에 걸쳐 비슷한 요인 부하값을 보인 문항, 그리고 문항-총점 간 상관을 떨어뜨린 문항 등 6문항이 탈락하고, 총 34개의 문항으로 척도가 구성되었다. MSLSS가 처음 아동용으로 개발되어 이후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 중학생용, 고등학생용으로 확장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아동용 K-MSLSS와는 다소 다른 문항구성의 척도가 개발될 것이다.

둘째, 국내에서는 아동의 안녕(well-being)을 측정할 수 있는 대안적인 척도가 없는 까닭에, K-MSLSS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타당도 평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아동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도구들과 K-MSLSS간의 상관연구를 통해 K-MSLSS의 수렴타당도, 공인타당도가 추가적으로 입증되어 측정도구로서의 타당성을 차츰 보완해 가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아동의 우울성향이 아동의 생활만족도와 부적 상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우울성향이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으로 구분하여 아동의 생활만족도를 하위요인별로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좋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보고하는 우울척도만을 사용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혹은 교사가 보고하는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 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아동이 보고하는 생활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밝혀보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일반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표준화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정책수립 및 제도의 마련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승호 · 김양분 (2004). 신뢰도. 서울: 교육과학사.
- 곽금주 (1995). K-LSSA 검사에 의한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5-16.
- 김의철 · 박영신 · 곽금주 (1998).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79-101.
- 박영신 · 김의철 ·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영석 · 이승은 (2000). 유아를 위한 감성지능척도 개발 예비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2), 1-26.
- 이영석 · 이승은 (2002). 부모와 교사가 가진 DAP 신념의 일치와 불일치가 유아의 우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9(3), 59-82.
- 이은혜 · 신숙재 · 송영주 (1992).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을 위한 자아지각 척도 개발에 관한 연

- 구. 생활과학논집, 6, 175-192.
- 조수철 ·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우울 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6.
- 최진원 · 이소희 (2002). 아동의 심리적 복지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3(4), 227-248.
- 한유진 · 최나야 (2004).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 및 생활만족도가 대인관계 상황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1(3), 363-384.
- Adelman, H. S., Taylor, L., & Nelson, P. (1989). Minors' dissatisfaction with their life circumstance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0, 135-147.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Y: Plenum.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Y: Russell Sage Foundation.
- Casas, F., Alsinet, F., Rossich, M., Huebner, E. S., & Laughlin, J. (2000, July). *Cross-cultural investig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with Spanish adolescents*. Paper presented at the Third Conference of International Quality of Life Studies.
- Dew, T., & Huebner, E. S. (1994). Adolescents' perceived quality of life: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2(2), 185-199.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Emmons, R. A., Larso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6.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 Emmons, R. A., & Diener, E. (1985). Personality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1, 89-97.
- Gilman, R., Huebner, E. S., & Laughlin, J. (2000). A first study of the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with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2, 135-160.
- Greenwood, P. J., & Saklofske, D. H. (1997).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with Canadian children.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5, 138-155.
- Greenwood, P. J., & Saklofske, D. H. (1998).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 965-971.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4th ed., pp. 275-385). NY: Wiley.
- Harter, S. (1989).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J. Kolligan & R. Sternberg (Eds.), *Perceptions of competence and incompetence across the life-span*. CT: Yale University Press.
- Huebner, E. S. (1991a). Initial development of the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2, 231-240.
- Huebner, E. S. (1991b).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in children. *School Psychology Quarterly*, 6(2), 103-111.
- Huebner, E. S. (1991c). Further validation of the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The independence of satisfaction and affect ratings.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9, 363-368.
- Huebner, E. S., & Alderman, G. (1993). Convergent

- and discriminant validation of a children's life satisfaction scale: Its relationship to self- and teacher-reported psychological problems and school function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30, 71-82.
- Huebner, E. S., & Dew, T. (1993a). Is life satisfaction multidimensional?: The factor structure of the Perceived Life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1, 345-350.
- Huebner, E. S., & Dew, T. (1993b). The validity of the Perceived Life Satisfaction Scal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4, 355-360.
- Huebner, E. S. (199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scale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6(2), 149-158.
- Huebner, E. S., Laughlin, J. E., Ash, C., & Gilman, R. (1998).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of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Further valid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6, 118-134.
- Keyes, C. L. M., Shmotkin, D., & Ryff C. D (2002).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1007-1022.
- Marsh, H. W., Barnes, J., & Hocevar, D. (1985). Self-other agreement on multidimensional self-concept ratings: Fctor analysis and multitrait-multimethod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360-1377.
- McCullough, G., Huebner, E. S., & Laughlin, J. E. (2000). Life events, self-concept, and adolescents' positive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y in the Schools*, 37(3), 281-290.
- Park, N., Huebner, E. S., Laughlin, J. E., Valois, R. F., & Gilman, R. (2004).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the dimensions of child and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repor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 61-79.
- Park, N., & Huebner, E. S. (in press). A cross-cultural study of the levels and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 Pavot, W., & Diener, E., Colvin, D. R., & Sandvik, E. (1991). Further validation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Evidence for the cross-method convergence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7, 149-161.
- Ratt, H., Bonsel, G. J., Essink-Bot, M., Landgraf, J. M., & Gemke, R. (200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comprehensive health status measures in children: The Child Health Questionnaire in relation to the Health Utilities Index.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55, 67-76.
- Smith, D. C., Adelman, H. S., Nelson, P., Taylor, L., & Phares, V. (1987). Students' perception of control at school and problem behavior and attitud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5, 167-176.
- Terry, T., & Huebner, E. S.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life satisfaction in children. *Social Indicators Research*, 35, 39-52.
- Waters, E. B., Salmon, L. A., Wake, M., Wright, M., & Hesketh, K. D. (2001). The health and well-being of adolescents: A school-based population study of the self-report Child Health Questionnair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9, 140-149.

1차 원고 접수 : 2005. 4. 15

수정 원고 접수 : 2005. 5. 16

최종게재결정 : 2005. 5. 17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K-MSLSS)

Jeong-Mi Lee

Yanghee Le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K-MSLSS). The K-MSLSS and K-CDI were administered to 254 children in grades 3 through 6. Sub-samples completed a retest and the Self-Perception Scale. Result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a five-factor structure: friends, school, family, environment, and self. Retest stability was acceptable for the five factors. Virtually all relationships between the K-MSLSS and K-CDI supported the validity of the K-MSLSS. However, several hypothesized relationships between the K-MSLSS and the Self-Perception Scale were not supported. These results offer further evidence for the concurrent validity of the K-MSLSS.

Keywords: life satisfaction, subjective well-being,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self-perception scal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